

2023
장애예술활성화
결과자료집

목차

01 완주무장애탐사단	5
02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	16
03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30

2023 완주문화재단 장애예술 활성화 사업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완주 장애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운영해오던 완주문화원탁회의 장애인예술 정책과 현황에 대한 논의와 기초 자료조사 추진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 예술활성화 사업을 기획하였다. 2023년 재단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3 완주무장애탐사단,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 사업을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완주군에 장애인합창단이 부재하여 합창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01 | 완주무장애탐사단

1cm 문턱의 불편함을 찾는 완주무장애탐사단

추진배경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원탁회의를 운영 해오며,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예측하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체험하고 제안함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시선을 통해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완주군 장애인 현황(2021년 기준)

	전체	남	여
인원(명)	8,049	4,382	3,667

장애유형	인원(명)
뇌전증	20
장루요루	31
안면	5
간	25
호흡기	24
심장	6
신장	167
정신	384
자폐성	41
뇌병변	685
지적	882
언어	71
청각	1,194
시각	605
지체	3,909

모집

장애예술에 관심이 있는 완주군 거주자 대상으로 완주무장애탐사단 8팀 을 모집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참여하는 완주무장애탐사단은 완주군 공공문화시설을 체험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는 문화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이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8팀 (16명)이 지원하였고, 2023년 완주 공공문화시설 17곳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완주 무장애 탐사단 참여팀 (8팀) 현황

소속기관	참여팀명	팀원
1	은혜의 동산	김**, 임**
2	기쁨의 동산	주**, 김**
3	예수재활원	노**, 박**
4	예수재활원	홍**, 이**
5	늘푸른그룹홈	유**, 김**
6	드림서비스센터	김**, 유**
7	정심원	홍**, 우**
8	한사랑(아리아리)	김**, 김**

성별	전체	남	여
인원	16	8	8

연령대	전체	40대	50대	60대
인원	16	5	6	5

장애유형	전체	지체	뇌병변	정신
인원	8	4	3	1

완주군 공공문화시설 방문 리스트 (17곳)

구분	연번	공간명	참여팀 장애유형
도서관	1	A	정신
	2	B	정신, 지체
	3	C	지체
	4	D	뇌병변
	5	E	뇌병변
	6	F	뇌병변 언어, 지체, 지적
	7	G	뇌병변
	8	H	뇌병변, 언어
공연 및 전시	9	A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10	B	뇌병변
	11	C	뇌병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12	A	뇌병변
	13	B	정신장애
	14	C	정신, 지체
복합문화공간	15	A	뇌병변
	16	B	정신
	17	C	뇌병변, 언어

주요의견

- 장애인 관람석 다양한 선택지 필요
- 장애인 유형별 보조도구 확충필요
- 사용이 용이한 곳에 보조도구 비치 필요
- 휠체어 대여, 음성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각종 안내문 개편(큰글씨, 이미지)
- 장애인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
- 승강기, 리프트, 경사로 보완 필요
- 승강기와 화장실 휠체어 회전 공간 부족
- 화장실 비상벨 높이가 적절하지 않음
- 입구에서 거리가 먼 장애인 주차구역 보완 필요
- 터치 투어, 음성해설, 수어 통역 제공

시설별 현황과 제언

도서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실에 장애인을 위한 휴식공간 - 대출증을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구조 - 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제안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위한 편의 불충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경사로 미비 - 올라가는 입구통로 휠체어 이용불가 - 장애인 화장실이 2, 3층에 없음 - 청각장애, 발달장애를 위한 서비스 불충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도서 열람실은 계단만 이용가능 - 1층에서 도서 검색 후 전달받는 방법제안 - 청각장애 고려한 서비스 불충분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자 제안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불충분 - 돋보기 등 보조도구 비치 제안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제안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불충분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내 휠체어 회전 공간 불충분 - 청각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불충분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많음 - 돌아다니며 책을 고르기 어려움 - 화장실 유리문이 무겁고 비상벨 없음 - 높은 책장에 책을 꺼내기 어려움 - 돋보기, 보청기 등 비치 제안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위한 편의 불충분 - 장애인 화장실 1층에만 있음 - 안내데스크, 게시판 등 높음

공연전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청각장애 편의서비스 불충분 - 장애를 고려한 보조도구 비치 미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만 있고 좁음 - 시각장애, 청각장애 편의 불충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와 리프트 미비 - 건물 뒤쪽에 경사로 진입 어려움 - 2층 남자 화장실 사용 불가 - 화장실 비상벨 없음 -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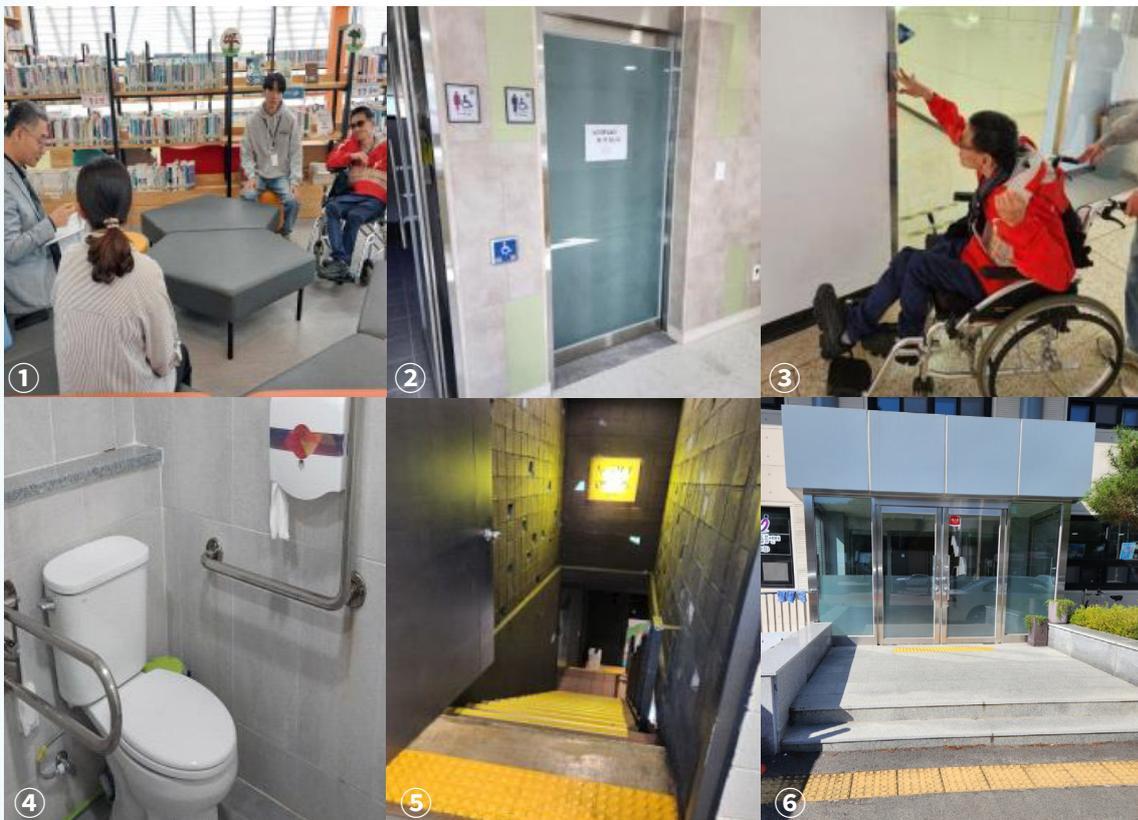
생활문화센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차장 및 승강기 미비 - 시각장애, 청각장애 서비스 불충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문턱 제거와 경사로 설치 제안 - 승강기, 리프트 없음 - 시각장애, 청각장애 편의 불충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와 리프트, 경사로 없음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위한 편의 부족 - 장애인 화장실 1층에만 있음 - 안내데스크, 게시판 등 높음 - 문화센터 수어통역, 자막 해설 없음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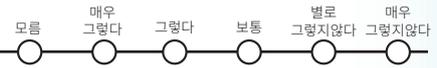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제안 - 실외공간 의자와 공간 제안 - 전시관 실내 정수기 제안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내부에 리프트 설치 제안 -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위한 서비스 확대제안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 출입문을 열면 휠체어 통행불가 - 잔디밭 일부 장애 주차구역 설정 제안 - 장애인 위한 축지도, 안전바 미비 - 지하층으로 이동할 승강기 없음

탐사단 활동 현장



- ① 탐사단 활동 모습
- ② 장애인 화장실 고장으로 이용이 불편한 상태
- ③ 열림버튼 높이가 다소높아 불편한 상태
- ④ 화장실에 비상벨이 미설치
- ⑤ 계단만 있는 지하공간
- ⑥ 계단만 있는 건물입구

설문조사 결과



접근성 | Q1

이 문화시설의 홍보물을 접한 경험	응답 수	비율(%)	순위
있다	12	35.3	2
없다	22	64.7	1

- 전체 34 응답 중 64.7%인 22명이 방문했던 문화시설 홍보물을 접한 경험이 없음

접근성 | Q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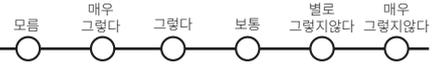
홍보물	장애인이 홍보물을 접할 방법이 있다	12	1	6	6	4	5
	장애인을 위한 편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0	0	5	7	12	10
컨텐츠	발달장애를 고려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0	0	4	13	7	10
	청각장애를 고려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0	0	1	2	17	14
기타	시각장애를 고려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0	0	7	5	6	16
	언제든 입·퇴장 등 이동이 편리하다	2	0	21	5	3	3

- 발달장애를 위한 콘텐츠로 그림, 텍스트, 쉬운 단어, 심터 등 편의 제공이 '있다' 17명 50%
-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고려한 콘텐츠는 25명(74%), 22명(65%)이 '별로 없다' 또는 '없다'고 응답
-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매개시설 | Q8-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잘 설치되어 있다	0	13	14	3	2	2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위치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0	8	10	6	4	5
문화시설까지 대중교통 이동이 용이하다	0	4	6	12	5	7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다	0	12	10	4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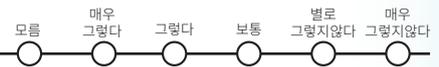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8명(53%)만 '위치가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개선 필요
- 대중교통 이용은 10명(29%)만 '문화시설까지 이동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여 개선 필요



내부시설 | Q12-21

이동을 위한 휠체어 대여 등 서비스가 편리하다	0	0	8	3	10	13
공연이나 전시 관람의 높이가 적절하다	3	1	11	12	4	3
관람석 휠체어 좌석이 충분하다	2	1	8	9	10	4
관람석 휠체어 좌석의 높이가 적절하다	2	0	10	4	4	4
이동공간의 바닥이 평탄하고 안전하다	0	13	16	5	0	0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동이 용이하다	0	11	7	3	3	10
경사로를 사용하여 이동이 용이하다	1	4	8	1	7	13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여 이동이 용이하다	2	1	4	1	8	18
휠체어 상용을 고려하여 승강기 문의 개폐 속도가 적절하거나 조절이 가능하다	3	6	7	6	2	10
휠체어1대와 동승자 1명이 함께 이동하기에 승강기 크기가 충분하다	3	8	6	3	4	10

- 휠체어 대여 서비스 편리성은 23명(68%)이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로 개선 시급
- 휠체어 좌석은 9명(26%)만 충분하다로 개선 필요
- 승강기 이동 용이성은 시설별 편차가 커 보임
- 경사로 이용 편의성은 20명(59%)이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로 개선 필요
- 휠체어 리프트 이동 용이성은 26명(76%)이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로 개선 필요
- 승강기 개폐 속도와 승강기 크기 10명(29%)이 '매우 불편하다'로 응답하여 개선 필요



위생시설 | Q22-25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0	27	7	0	0	0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0	30	4	0	0	0
화장실내 휠체어 회전공간이 충분하다	0	5	8	8	7	6
비상용 벨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적절하다	0	7	4	8	4	11

- 휠체어 회전 공간은 13명(38%)만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개선 필요
- 비상용 벨의 높이가 11명(32%)만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개선 필요

안내시설및매체 | Q26-28

안내시설 등에 휠체어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있다	0	5	14	10	3	2
안내시설 등에 안내책자, 보조도구 등이 비치되어 이용하기 용이하다	2	0	5	4	10	13
무인단말기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3	1	8	6	6	10

- 안내책자와 보조도구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 23명(68%)으로 개선 필요

기타 | Q29-30

주요시설에 점멸 비상 경보등, 피난 유도등, 통로유도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0	3	12	9	9	1
모든 장애인이 이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	0	8	12	11	3

- 참가자 24% '장애인이 이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개선 필요

탐사후기 : 결과공유회 주요 의견

“왜 휠체어 관람석은 맨 앞이나 맨 뒷좌석만 있냐요? 영화관, 공연장의 앞쪽에만 배치된 휠체어 관람석 위치 선택의 폭을 넓히면 좋겠어요”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장애인도 도서관 열람실을 돌아다니며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통로가 넓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출입구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활동하며 서로의 시선으로 공감했기에 의미가 있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다니면서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경사로가 없는 계단으로 된 입구가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자동문 스위치가 너무 높아 혼자서 누를 수 없는 모습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장애인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힘들 텐데 여긴 왜 왔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보고 또 보는 등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았다.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와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완주무장애탐사단> 활동을 마치고

임평화 | 은혜의동산 원장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완주 무장애 탐사단’활동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팀이 되어 완주의 여러 문화시설을 이용해보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경험해보는 활동이다. ‘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화장실에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세면대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위치나 높이가 적절한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이 제공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나 음성안내기가 있는지’ 30여 문항으로 되어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샅샅이 더듬어 조사해 보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소였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다니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사로가 없는 계단으로 된 입구가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자동문 스위치가 너무 높아 혼자서 누를 수 없는 모습에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화장실 입구가 좁아 장애인을 안아서 화장실 안으로 옮겨 드리는 수고도 있었다. 요즘 ‘무장애 여행, 무장애 숲길, 무장애 주택, 무장애 공연, 무장애 지도....’ ‘무장애’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없앤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기타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장애요소는 물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포함이 된다.

무장애탐사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불편함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힘들 텐데 여긴 왜왔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보고 또 보는 등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많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말이다. 이에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와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장애인들과 여행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잊을 수 없다. 여수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울먹이던 모습, 오십 평생에 처음 배를 타보니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였고, 서울스카이라워 120층에 올라 서울전경을 내려다보며 와~ 와~ 연신 감탄했다. ‘무장애탐사단’ 활동을 마치고 완주 곳곳의 문화예술 시설의 탐사보고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왜 공연장의 휠체어 좌석은 맨 뒤 또는 맨 앞에만 있어야 하나요?’, ‘전시관 곳곳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두면 걷기가 불편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을 텐데요’, ‘화장실 안내판이 너무 높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등등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누리는데 더욱 편리하고 차별이 없는 완주가 되길.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살기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

02 |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

추진배경

완주문화원탁회의를 운영하며 장애인예술 정책과 현황에 대한 논의와 기초 자료조사를 추진(2021년~2022년)해 오던 중,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로 구성된 제한된 커리큘럼의 변화와 상호 소통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교육에 관심있는 완주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장애 예술교육 매개자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미술, 음악 등 예술교육의 결과물에 집중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예술활동의 매개자 역할을 위한 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추진과정

01 전문가단 구성 및 회의

전문가 그룹 구성(장애예술 분야)
완주형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콘텐츠 논의

02 콘텐츠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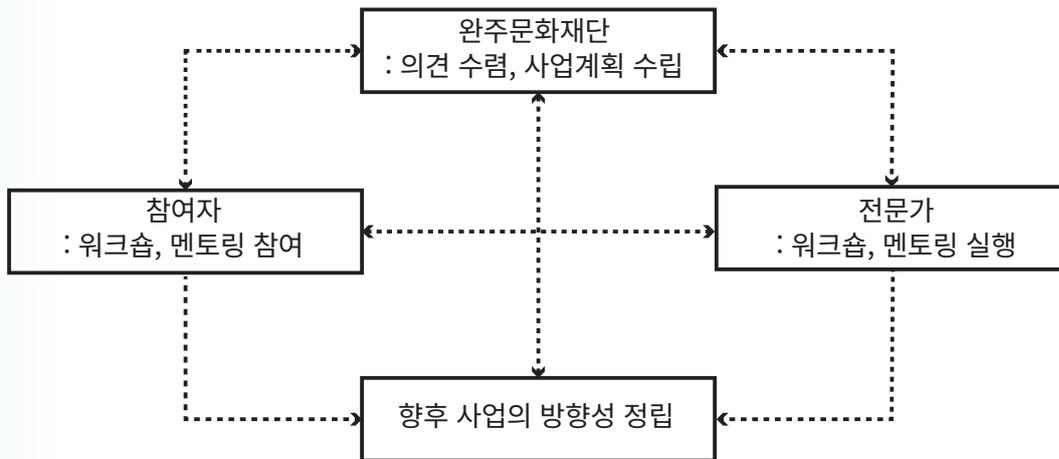
과정 콘텐츠 및 추진 계획 확정
교육실습 장소 협의 (아리아리, 은혜의 동산, 예수재활원)

03 실행

워크숍 및 멘토링
교육실습 및 결과공유

활동내용과 사전 간담회를 통한 논의

운영흐름도



워크숍 명칭

- 장애인 예술강사 및 ‘양성과정’의 뉘앙스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명칭으로 논의
-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반영

실습팀 구성

- 2인 1팀 실습 등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논의
- 내년에는 장애예술 강사보조 등 역할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보는 기회 오픈하면 효과적일 것
- 워크숍 후 도출되는 자기 과제에 따라 원하는 교육 대상 매칭 등 논의

방향성 제고

- 공예, 기준, 디자인 등 결과물에 집중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향성 필요
-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에 대한 부담감 줄일 필요
- 예술가의 콘텐츠 확장의 개념으로 장애예술강사 접근을 지양, 현장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지향

네트워크 구축

- 일회성 결과물 위주가 아닌 참여자 네트워크로 연속적 연결 필요
- 지역의 기관 등 관련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으로 확장의 필요에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호흡을 함께하는 시간과 노력 필요

세부운영과정과 전문가 그룹

세부운영과정

- 01 매개자 모집 & 오리엔테이션
다름을 이해하는 매개자 모집 후 첫 만남
- 02 워크숍 & 멘토링
장애예술전문가 (최선영, 문해주, 김인규)
- 03 교육실습
워크숍과 멘토링을 통해 달라진 관점으로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실습
- 04 결과공유회
워크숍, 멘토링, 교육실습의 모든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의 소감
현장에서 있었던 일, 향후 방안에 대한 제안 등을 공유

최선영

- 현) 유구리최실장 대표, 문화예술기획자, 장애 문화예술교육 강사
- 2015년~2020년 :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개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달
-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문해주

- 현) 설치예술가 문화예술교육가
- 발달장애인 문화놀이터 꿈더랜드 피터팬클럽 더+드림아트 미술 강사
- 배리어프리 자아탐색 프로그램 기획*운영(하자센터)
-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인규

- 현) 발달장애인 미술활동 기획·운영
- 배리어프리 플레이그라운드(한국장애인예술원 이음) '발달미로캐슬' 기획운영
-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 발달장애인 일상 활동 지원

워크숍

1차: 10. 4.(수) 최선영

2차: 10. 11.(수) 문해주

3차: 10. 18.(수) 김인규

음악, 미술, 무용 등 기존의 예술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이 10월 4일 오리엔테이션과 1차 워크숍으로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질문과 경험 등의 나눔과 공감에 있었고 장애예술교육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사례를 나누며, 장애예술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변화를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최선영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문해주 우리는 예술의 결과물을 미리 마음에 그려 놓고 학습의 과정을 결과물 산출에 너무 집중하고 있던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김인규 장애예술 학습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건가요?

최선영 표현으로 들어가는 상태, 표현되고 있는 상태, 표현된 상태 각각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기다리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해요.

최선영 | 문화예술기획자/예술교육연구자
장애인의 작은 표현에도 넓은 세계가 있을까.
다양한 표현의 상태는 작은 단위의 관찰을 통해 개별성으로 발견된다.

문해주 | 설치예술가/문화예술교육가
지금 현재 각자가 어디에 서있고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삶터에서 예술로 함께 놀기.

김인규 | 서천발달장애예술창작그룹보물섬 대표
장애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알맞은 위치를 확인하고 알맞게 자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1 멘토링 & 교육실습

- ① 한사랑(아리아리) - 11. 6.(월), 11. 9.(목)
- ② 예수 재할원 -11. 8.(수)
- ③ 은혜의 동산 -11. 22.(수)

김영란 | 한사랑(아리아리)

[주제 : 내 마음이 머무는 지점]

투명한 용기나 투명 필름에 테이프와 네임펜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문해주 | 멘토

: 다양한 재료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자연재료와 페트병과 같은 일상 재료를 사용하여 의미있는 작품을 만드는시도가 흥미로울 것

: 작품을 함께 매달아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는 참여예술활동이 될 것

: 끈을 매달아 공간에 설치하여 입체와 공간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자극에 좋을 것

: 참여자 스스로의 마음을 그림이 아니라 색으로 표현가능한 방식을 시도해 보면 좋을 듯함

김재이 | 한사랑(아리아리)

[주제: 초록 그리고 초록]

조색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가짓수의 초록을 표현하기

김인규 | 멘토

: 혼색 방법과 순서와 같은 혼색기법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여자들의 탐구심을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듯함

: 최대한 많은 색 사용, 여유시간이 남으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기획하면 좋을 것

: 참여자들이 탐구심을 갖고 혼색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음

: 기능의 숙련이 아니라 활동의 즐거움에 초점을 두기 바람



김영란



김재이

이선자 | 한사랑(아리아리)

[주제: 가을 표현하기]

스크래치 페이퍼에 마음껏 가을 표현하기

김인규 | 멘토

- : 작품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갖기보다는 활동의 과정이 주는 충족감이 대상자들에게 더욱 중요
- : 활동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적극적 시도할 것

박정아 | 예수재활원

[주제: 합창을 통해 세계를 만나보자]

주체적으로 합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 시도

최선영 | 멘토

- : 합창의 목적이 소리를 잘 내고 타인에게 노래 들려주기 위한 것만은 아님
- : 가사를 먼저 읽고 그 노랫말을 생각해보고 대화도 나눠본 후 노래를 접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 : 음악을 먼저 듣고 느낌이 어떨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 : 음악을 먼저 들으면서 그 느낌을 몸의 움직임이나 동작, 춤으로 표현 해보자고 해볼 수 있음
- : 서로의 소리(노래)를 들어보거나 들려주는 상호적 활동을 워밍업 시간 등에 넣어도 좋을 듯함
- : 시각적 이미지를 화면으로 편집해서 보면서 하는 활동 계획도 좋은 방식
- : 다양한 방법론이나 악기 등 장치를 넣어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볼 것



허진숙 | 은혜의 동산

[주제: 작품 제목 정하기]

작품의 내용을 공유하며 작품의 느낌과 스토리 설명하기

문해주 | 멘토

: 강의 주제와 내용이 포괄적이라 참여자가 좀 더 영감을 받으며 ‘작품제목 정하기’ 등 능동적으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음

: 수업자료로 타인의 그림이나 글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발견’과 그것을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필요함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을 마치며...

사람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예술

최선영 | 문화예술기획자

도화지에서 시작하는 미술은 다수에게 얼핏 익숙해 보인다. 노래로 시작하는 음악, 글쓰기로 시작하는 문학, 대본으로부터 시작하는 연극처럼. 하지만 나에게 익숙한 것도 해체하고 질문하는 것이 예술일 수 있다. 그리고 예술 영역에서만 미련한 질문하기를 공식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가는 예술교육 활동 안에서 자신이 공부하거나 반복하고 있는 방법론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특히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자신은 드로잉북에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부터 ‘미술’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드로잉북의 펄럭거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드로잉북을 찢는 행위에 더 흥미를 갖는 사람, 드로잉북을 스스로 넘기기 어려운 사람, 드로잉이든 스케치든 그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미술’이라는 이름의 예술교육 현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가의 의도나 계획대로 예술교육 현장이 흘러가지 않는다. 각자의 욕구, 관심사, 조건, 경험 등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예술가가 제시하는 작은 요소들을 만난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반응을 한다. 이것은 재미가 없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다. 이것은 안 하고 평소에 하던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다 등의 자기표현이 현장에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 계획, 이야기, 의도 등이 참여자의 개별성과 만나 엇나가며 끊임없이 질문을 남긴다. 그렇다면 무엇을 제안 해볼까. 어떤 방식이나 언어로 제안을 해야 할까. 제안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재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재미가 없는 것도 해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술은 매번 재미있고 밝고 쉽지만은 않으니까.

장애인 예술교육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이유는 종종 위와 같은 끊임 없는 질문의 필요 때문이다. 예술가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거나 바꿔야 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미학 언어로 구축된 예술을 학습해 온 예술가에게 드로잉북을 스케치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사물로 재탐색하는 과정, 음악을 미세한 진동으로부터 시작하는 실험, 대본을 읽을 수 없는 사람과 연극을 하는 과정 등은 낯선 경험이 된다. 혹은 미술, 음악, 연극 같은 장르도 다 버리고 예술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사실 가장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예측이 되는 무언가를 반복하며 누군가에게도 제공, 전달하는 것은 예술적인 과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구획된 ‘예술’이라는 과목을 참여자에게 교육하는 의도가 더 커질 뿐이다. 참여자를 대하는 방식, 참여자와 만나는 이유, 참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태도 등이 기존의 ‘교육적’ 의도와 유사한데 그 안에 장르 중심의 예술을 내용으로만 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지점에서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은 참으로 애매하고 오묘하다. 하지만 불명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예술은 가장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뽐낼 수 있다.

정해진 모습을 조각처럼 맞춰 보여준 후 그것의 다양성만을 예술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예 없던 조각도 제시하는 것, 조각이 아니라 다른 성질의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는 움직임 그 자체가 예술을 더 오롯이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예술교육은 그동안 익숙했던 예술과 예술교육에 대해 예술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예술가에게 매우 감사한 경험이다. 참여자와의 만남도 흥미롭고 다채로운 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욱 본질적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 완주문화재단에서의 매개자 과정은 그러한 질문하기의 과정을 충분히 담아내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필자를 포함한 3명의 예술가/예술교육가가 매개자 과정의 참여자들과 소규모로 1-2회 만나며 대화를 하고 이후 참여자들이 실습 활동을 1회 진행하였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단시간에 꺼내고 부수고 다시 꺼내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정된 예산과 상황 안에서 재단이 현재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한 측면이 있었고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재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정도였다.

그렇기에 개별 참여자들의 실습 내용을 사업의 결과로 전제하고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큰 질문은 던져볼 수 있다. 얼마나 자신에게 익숙한 예술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로 해왔던 예술의 다른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교육이 주로 철저한 계획 안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역량’을 요구하더라도 예술가라면 자신의 질문과 시도를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더욱 참여자들의 개별 실습 현장에서 덜 미술 같은 것, 덜 음악 같은 것, 덜 연극 같은 것 등을 보고 싶었다. 가장 예술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를 바랐다. 하나의 장르 중심으로 활동해 온 예술가나 예술교육가가 이번 매개자 과정에 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완주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매개자 과정도 이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보다 예술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매개자 과정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내용과 방법론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낯선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학습한 개념과 방식을 깨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렵고 어렵다. 어려운 것을 해본 후 흥가분해지는 대신 계속 어려워지는 선택을 또 하는 것이 예술 영역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매개자의 태도이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장애인은 장애유형으로만 분류 가능한 특별한 사람으로 전제될 필요는 없다. 만나면서 스스로 바꿔보자. 장애에 대한 생각도 예술에 대한 개념도.

장애예술 매개자과정 참여자의 교육실습을 함께하며

박정아 | 음악 프로그램 강사

이승철 | 글쓴이 | 예수재활원 원장

2023년 11월 10일 예수재활원에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의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박정아 지휘자님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지휘자님이지만, 예수재활원 입주장애인분들을 위해 특별한 만남으로 찾아와주셔서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실습과정에 함께한 장애인들은 평소 흥이 많은 분들로, 지휘자님의 지도에 따라 각자 최선의 음성과 몸짓으로 참여하였다. 한 명, 한 명의 표정에서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화예술, 그림, 악기를 연주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전문적인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완주문화재단과 소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예술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그 놀이자체가 장애문화예술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고 있기에 그 시간이 그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랬기 때문에 참여했던 분들이 행복해했고,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좋아요” | “재미 있어요” | “뭔가 좀 다른데, 좋아요” | “가슴이 뛰어요” 다양한 대답들 속에 공통적으로 한가지 같은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기분 좋다=행복하다=즐겁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끝나갈 무렵 느지막하게 흥이 올라온 장애인분들은 ‘더 해요’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즐겁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었다. 즐겁고 행복했기에 이 시간이 많이 짧게 느껴졌던 것 같다.

문화예술 수업관련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좋아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표현이 명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에 더 다양한 영역을 접할 수 있도록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양하게 경험한 영역들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함, 지속성은 흥미롭게 접근한 영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중요한 다름질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속성과 꾸준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좋아하는 영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힘들어도, 귀찮아도,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이끌어가는 강사(교사)의 전문성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꼭 필요하다.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장애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재활원의 많은 장애문화예술인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오며, 현재의 멋진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재활원의 장애문화예술인들 한명 한명이 그렇게 꾸준함으로 그들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고 꾸준했기에 가능했다. 즐거웠기에 가능했고 행복했기에 가능했다. 가능했기에 예쁘게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런 함께의 시간에 장애문화예술인은 다시 채워진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 교육실습

허진숙 | 예술 프로그램 강사

임정화 | 글쓴이 | 은혜의 동산 팀장

하얀도화지 위에 각자 그리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는 미술강사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색연필로 그려 나갔다. 꽃, 집, 나무, 책, 야구공, 시계. 그리고 끄적끄적 무엇을 표현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끄적거림. 서로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려 나갔다.

한*희: 집과 꽃을 그렸는데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았다고 하였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내가 그려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려보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남*희: 교회와 꽃을 그리고 교회 안에 하트모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적어 놓았다. 강사님과 함께 오신 아드님이 그림을 참 잘 그렸다. | 박*운: 집과 나무, 집안에 창문을 그려 넣었다. 집 옆에는 도자기도 그려 넣었다. 어린시절 엄마, 형, 동생과 살던 집을 그려보았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 우*제: 여러 사람들을 그렸다. 은혜의동산 사람들을 그렸다. | 김*봉: 여러 가지 선들이 그렸다. 연필을 쥐는 것도 힘이 들어 보이는데 이 선들은 무엇을 표현했는지 물어보니 컵에 담긴 물이라고 하였다. | 정*상: 해리포터책, 십자가, 야구공을 그렸는데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야구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야구공을 그렸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 중에는 편마비로 손에 힘이 없어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 선을 그리거나 끄적거리는 것도 손 근육을 움직이는 좋은 재활운동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비장애인의 눈에는 그림 같아 보이지 않고 낙서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표현하려는 것이 있고 표현한 작품으로 인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과 미술, 공예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결과물을 얻기까지 기다리는게 힘들어 후다닥 작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는 것이다. ‘내가 안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다소 느끼고 더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표현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빼앗고야 마는 결과일 수 있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교육실습시간은 다른 프로그램 시간보다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더 자유롭고 자신을 표현하기에 편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도입, 전개, 결말의 구분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도입부분에서 장애인분들과 주제에 맞게 많은 대화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장애인에게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예술의 삶을 인식하고 장애인 내면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매개자의 역할일 것이다. ‘장애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예술’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할 기회를 확장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에 참여한 한사랑의 이야기

김영란, 김재이, 이선자 | 예술 프로그램 강사

김언경 | 글쓴이 | 정신재활시설 한사랑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 실습 장소로 선정된 한사랑은 정신재활시설로 병원에서 정신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사람들이 퇴원해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재활훈련하는 기관이다. 시설에서는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 기술훈련, 증상, 약물교육, 직업재활, 여가선용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재활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해 많이 부족한 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장애예술교육 실습장소로 선정이 되어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있을지 설레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장애인예술교육 매개자과정 참여자 중 3명이 한사랑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저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실습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사랑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회원들의 반응은 좋았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문화를 ‘예술’로만 생각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편안한 놀이처럼 생각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예술교육 매개자과정 참여자 15명 중 매우 만족 5명, 만족 7명, 보통 2명, 아니다. 1명 매우 아니다 0명으로 설문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고 대해 주신 것 같다”, “어렵지 않고 쉽고 놀이처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유롭게 해보라고 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했으면 더 친해 질 수 있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어떤 교육실습을 하겠다는 멘토링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충분히 쏟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보통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수강생들과의 라포형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은 장애인과의 라포형성 및 프로그램 진행까지 진행되어야 하다보니 강사들 입장에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버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이 장애인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획하고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동안 장애인과 함께 매개자 과정 강사를 양성하고 하반기엔 강사들이 장애인과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진행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다른 수업과 달랐던 점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미리 고민하고 참여한 강사들이었다. 한사랑에서도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간혹 당황해하시는 강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예술교육 매개자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접근하다 보니 좀 더 편안하게 회원들을 대하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적었던 것 같다. 더욱 달랐던 점은 장애인 예술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한사랑 회원 중에서도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 회원이 있었는데 그 회원에게도 매개자로서의 기회는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회원은 정신질환이 있지만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을 가진 수강생들에게는 무언가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주문화재단의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은 일반 예술인 선생님들의 양성도 좋지만 장애인 예술인의 발굴과 함께 매개자 과정을 통해 다른 다양한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03 |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다름을 쌓아 화음을 만들어가는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완주문화재단은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시설·기관 등과 논의 해오던 중 완주군에 장애인 합창단이 부재하여 창단에 대한 지역의 높은 수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요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고자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을 창단했다.

완주문화재단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단순한 향유자에서 적극적인 창작자로 활동하고, 합창이라는 단체활동을 통해 장애·비장애인 간 소통과 공감의 경험을 쌓아가며 장애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한다.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함께 행복하고

음악을 통하여 서로 소통-힐링-회복되며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기회로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2023년 여정

- 2023. 08. 02. : 사업 세부실행 계획 수립
- 2023. 08. 10. : 단원 모집공고 시작
- 2023. 08. 21. : 화성시장장애인합창단 벤치마킹 방문
- 2023. 08. 31. : 단원 오디션
- 2023. 09. 01. : 단원 모집 완료
- 2023. 09. 07. : 창단식 개최
- 2023. 09. 14. : 정기연습 시작
- 2023. 11. 01.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공연 (누에 복합문화지구)
- 2023. 12. 19. : 완주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송년의 밤 공연 (완주가족문화교육원)
- 2023. 12. 21. : 간담회 개최
- 2023. 12. 31. : 2023년 사업 집행 완료



합창단 운영

완주문화재단은 2023년 8월 31일 오디션을 거쳐 장애인 26명, 비장애인 9명의 단원으로 완주 최초 장애인합창단 ‘꽃’을 창단하였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행복드림 복지회의 메세나 후원 기금과 은혜의 동산, 아리아리, 예수재활원, 정심원 장애인 지원 기관들의 협력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다른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예술 창작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현장이다.

합창단 단원들은 주 1회 정기연습으로 문화공동체를 체험하였고, 공연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의 긍정적 경험 및 새로운 역할 또한 체험했다. 11월 1일 누에 복합문화지구에서 열린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에서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오디션 곡이었던 ‘고향의 봄’을 첫 공연 곡으로 선택,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을 함께 가졌다. 12월 19일에는, 완주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송년의 밤’에 초청되어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으로 2023년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결과공유회

2023년 9월에 창단하여 뜨겁게 달려온 한해를 마무리하며 12월21일 한 자리에 모였다. 완주장애인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 그리고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은혜의 동산, 예수재활원, 아리아리, 정심원 관계자분들과 경험담을 나누고, 앞으로 활동에 관한 의견들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
전반적인 만족도	23	6	0	0
정기연습 등 참여시간의 적절성	19	9	1	0
기대했던 문화예술 활동의 충족도	20	9	0	0
단원 등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호감 상승도	18	11	0	0
내년에도 참여희망	21	7	1	0

설문결과 2023.12.21 진행

기타 의견

노래를 더 부르고 싶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음

합창이 즐겁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좋음

합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싶음

발행인	유희태
발행처	(재) 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3년 12월
총괄	정철우
책임	송은정
기획·진행	이윤주
북디자인·인쇄	호재료
홈페이지	www.wfac.or.kr
이메일	mail@wfac.or.kr
주소	(55352)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무단복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여 인용할 때에는 완주문화재단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